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핀란드 경제의 장기침체와 구조개혁

- 강유덕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장
(ydkang@kiep.go.kr, Tel: 044-414-1123)
- 양효은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전문연구원
(heyang@kiep.go.kr, Tel: 044-414-1042)
- 임유진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연구원
(yylim@kiep.go.kr, Tel: 044-414-1064)

차 례 ●●●

1. 배경
2. 핀란드 경제의 특징과 구조변화
3. 핀란드 경제의 장기침체와 원인
4. 핀란드 경제의 구조개혁 노력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핀란드 경제는 2012~15년 기간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경기침체의 원인이 복합적이며,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인구 540만 명의 핀란드는 북유럽의 전형적인 복지국가로 국가경쟁력, 사업환경 지수 등에 있어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2012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 중 가장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 핀란드 경기침체의 특징은 매년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크지 않으며, 대외수출의 호조가 내수침체를 상쇄하는 남유럽 국가(그리스, 스페인 등)들의 경기침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는 점임.
- ▶ 핀란드의 경기침체는 내수부진의 성격을 띤 남유럽과는 달리 수출경쟁력 약화와 같은 공급측 요인이 더 우세하게 작용함.
 - 핀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장기간 노동비용의 상승이 지속되었는데, 이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특히 임금상승의 정도가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면서 수출경쟁력이 점차 악화되었음.
 - 핀란드의 수출이 감소한 데에는 2008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점유했던 노키아의 쇠퇴 등 전자통신 산업의 경쟁력 하락이 결정적으로 작용함.
 - 임금상승 및 통신장비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은 탈제조업화와 같은 핀란드 경제의 구조변화와 병행하여 발생하였는데, 2000~14년 기간 중 핀란드는 OECD 회원국 중 탈제조업화 현상을 가장 심하게 겪었음.
 - 공급측 요인과 함께 2014년 이후 발표된 EU의 대러시아 제재도 핀란드 수출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함.
- ▶ 핀란드 정부는 산업경쟁력 향상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핀란드 정부는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출축소를 통한 재정건전화와 병행하여 사회복지 및 노동분야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점, 핀란드 내 노사정 대화의 전통은 구조개혁에 긍정적으로 작용
- ▶ 구조개혁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핀란드 경제는 2016~17년 중 불가피한 저성장 시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부진으로 인한 남유럽식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핀란드의 경기침체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대외경쟁력 유지가 중요하며,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은 호황기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1. 배경

■ 인구 540만 명의 핀란드는 북유럽의 전형적인 복지국가로서 국가경쟁력, 규제 등의 사업환경에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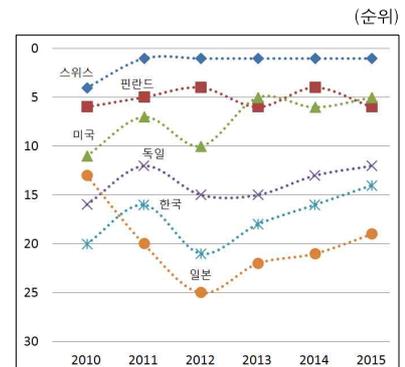
- 국제기관, 미디어 등이 매년 발표하는 혁신 및 국가경쟁력, 사업환경 지수에 있어서 핀란드는 매년 10위 이내의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음.
- o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가 14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핀란드는 매년 4~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World Bank 발표 사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에서는 매년 15위 이내를 기록하면서 사업환경이 양호한 국가그룹으로 분류됨.
- 복지국가의 바탕이 되는 높은 세율이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핀란드는 규제완화, 교육 및 R&D 투자, 적극적인 창업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음.
- o 2013년 핀란드의 정부 수입과 지출은 각각 GDP 대비 54.9%와 57.4%로 OECD 회원국 중 2위이며, 조세수입 규모(GDP 대비 %)는 2014년 43.9%로 OECD 회원국(평균 34.4%) 중 4위를 기록

표 1. 혁신 및 국가경쟁력, 사업환경 상위 10개국

(순위)				
	글로벌혁신지수	블룸버그 혁신지수	글로벌 경쟁력지수	사업 환경지수
1	스위스	한국	스위스	싱가포르
2	영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3	스웨덴	독일	미국	덴마크
4	네덜란드	핀란드	핀란드	한국
5	미국	이스라엘	독일	홍콩
6	핀란드	미국	일본	영국
7	싱가포르	스웨덴	홍콩	미국
8	아일랜드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웨덴
9	룩셈부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10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자료: 1) 글로벌혁신지수: INSEAD/WIPO, Global Innovation Index 2015, 2) 블룸버그 혁신지수: Most Innovatives: Countries 2015, 3) 글로벌경쟁력지수: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4-15, 4) 사업환경지수: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2015.

그림 1.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



자료: INSEAD/WIPO, 연도별 Global Innovation Index.

■ 반면에 핀란드 경제는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일부 남유럽 국가와 함께 가장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핀란드 경제는 2012~15년의 기간 중 사실상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 중 가장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 o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침체가 수년간 계속되고 있으며(표 2), 순수출의 증가가 내수침체를 상쇄하는 남유럽 국가와 달리 GDP 성장률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가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해 왔음(그림 2).
 - ※ 핀란드의 2014년 무역개방도(상품무역/GDP)는 56%로 북유럽 국가 중 평균 수준이며 그리스(36%), 스페인(47%) 등 남유럽 국가보다는 높은 편
- o 2010년 이후 핀란드보다 더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은 국가는 EU 회원국 중에는 그리스에 불과한데, 핀란드 경기침체의 특징은 매년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크지는 않다는 점임.

표 2. 핀란드의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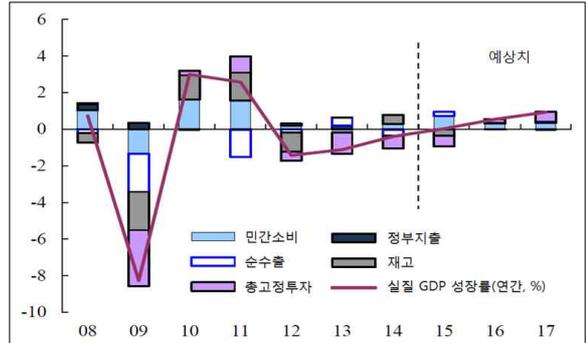
(단위: % 증가율)

	2005 ~2014	2011	2012	2013	2014	2015
GDP	0.6	2.6	-1.4	-1.1	-0.4	0.0
민간소비	1.7	2.9	0.3	-0.3	0.5	1.3
투자	-0.5	4.1	-2.2	-5.2	-3.3	-2.7
정부지출	0.8	-0.1	0.5	0.8	-0.2	0.0
수출	1.9	2.0	1.2	1.1	-0.7	-1.1
수입	2.8	6.0	1.6	0.0	0.0	-2.2

주: 1) 녹색 구간은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
2) 2015년의 자료는 추정치.
자료: Oxford Economics.

그림 2. 부문별 GDP 성장기여도

(단위: %p 또는 %)



주: 성장기여도는 %p, 성장률은 %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2016(February), p. 114.

■ 비교적 장기간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데에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복합적이며,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

- 핀란드의 경기침체는 장기간의 경쟁력 저하와 핀란드 산업의 구조조정 등 공급측면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외에도 인구구조의 변화, 대러시아 수출감소 등이 원인으로 작용함.
- o 핀란드는 남유럽과 달리 금융위기와 연계된 재정위기를 겪지 않았고, 재정적자, 국가채무 수준도 EU의 평균과 비교할 때 양호한 상황인 바, 현 상황을 수요측면에서 발생한 경기침체로 볼 수는 없음.
- o 반면에 핀란드 경제의 산업경쟁력 저하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노키아 쇼크(Nokia Shock)와 같은 산업계의 갑작스러운 구조조정도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
- o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인접국인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급감한 점도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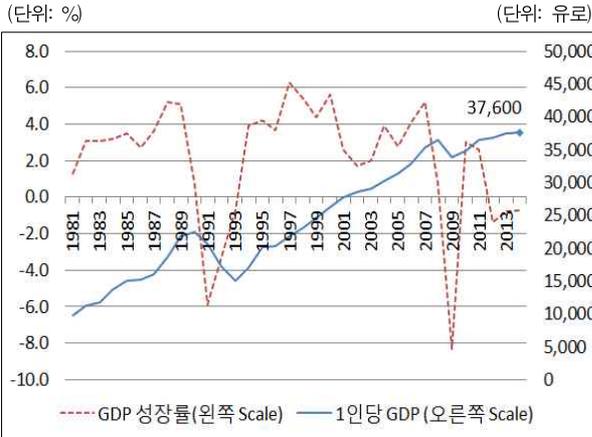
■ 이에 본고에서는 핀란드 경제의 침체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핀란드 사회의 인식과 핀란드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핀란드 경제의 특징과 구조변화

■ [경제성장] 2014년 기준 핀란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7,600유로로 세계 17위의(세계은행 2014년 기준) 고소득 국가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위기 이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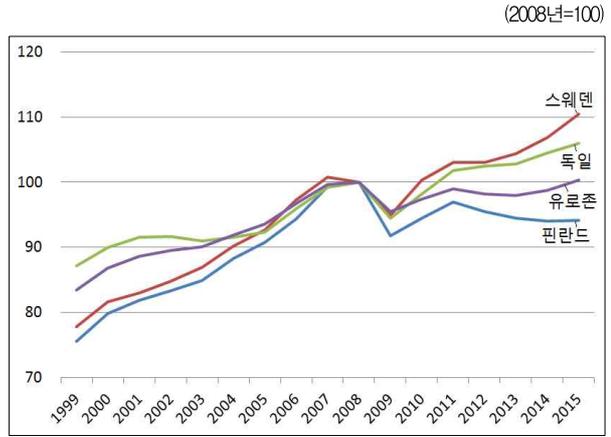
- 핀란드는 1990년대 초 최대 교역국이었던 소련의 붕괴로 인해 경기침체를 겪은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4년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함(그림 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핀란드 경제는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접국인 스웨덴과 비교할 때 큰 격차를 보임(그림 4).
- o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핀란드는 인접국인 스웨덴과 유사한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 성장률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핀란드의 GDP는 2006년 수준에 불과함.

그림 3. GDP 성장률 및 1인당 GDP 추이(1981~2014년)



자료: Eurostat(유럽통계청).

그림 4. 실질 GDP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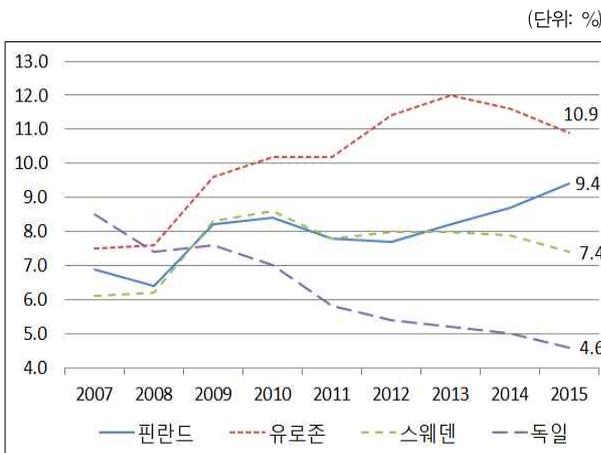


주: 2015년은 추정치임.
자료: Oxford Economics.

■ [실업률] 핀란드의 실업률은 9.3%로 유로존 평균을 하회하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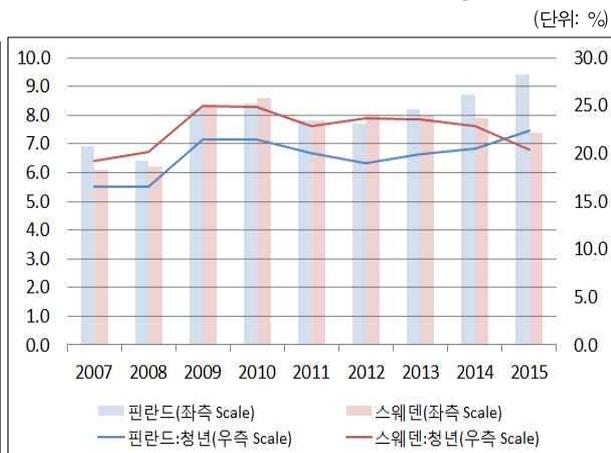
- 북유럽이라는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은 유사한 실업률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이후 비동조화 양상을 보임(그림 5).
- 핀란드의 청년 실업률은 2007년 이후 스웨덴보다 약 3%p 낮은 수치를 유지했으나 2012년 이후 증가하면서 2015년 22.4%를 기록함(그림 6 참고, 유로존 평균: 22.5%, 스웨덴: 20.4%).

그림 5. 핀란드 및 주요국 실업률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림 6. 핀란드 및 스웨덴의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



주: 유럽통계청(Eurostat)에서는 청년 실업률을 25세 미만 근로자의 실업률로 정의함.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재정수지] 핀란드는 2005~08년간 재정 흑자를 유지했으나 정부지출의 증가로 2008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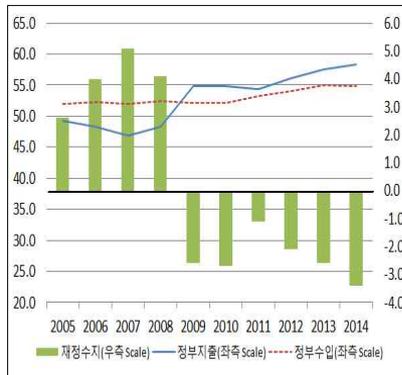
- 인접국인 덴마크, 스웨덴과 비교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됨(그림 7.1, 7.2).
- 2008년 이후 6년간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 GDP 대비 -3.3%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여 EU의 SGP¹⁾ 상한선인 3%를 초과했음.

- 국가신용평가기관인 S&P는 2014년 10월 핀란드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조정함.
- 정부 지출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지출이 2014년 기준 GDP 대비 2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증가율 또한 높음(그림 7.3).
- 사회보장지출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 확대임.
※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비중(GDP 대비 %): 2001년 7.6% → 2014년 12.2%(GDP 대비 4.6% 증가)

그림 7. 핀란드 및 북유럽 국가의 재정지표 비교

(1) 핀란드의 정부 수입 및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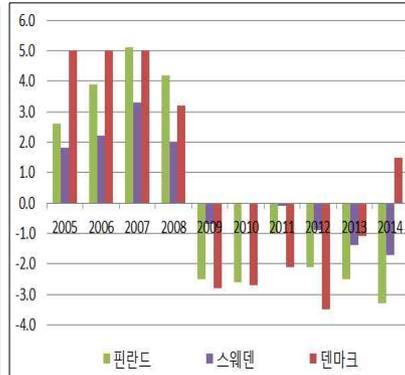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2) 북유럽 3개국의 재정수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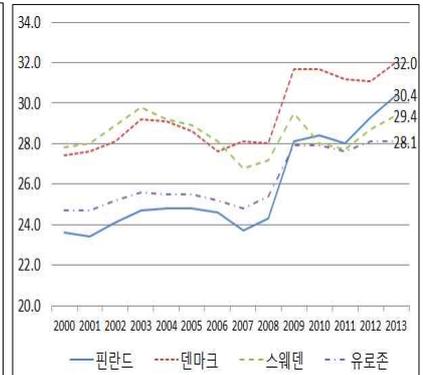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3) 북유럽 3개국 및 유로존 사회보장지출

(단위: GDP 대비 %)



주: 스웨덴의 2013년 자료는 누락됨.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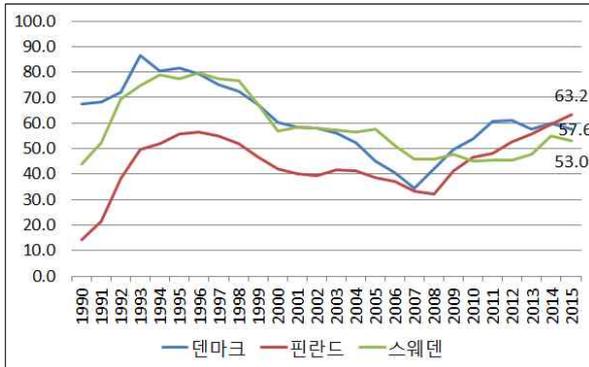
■ [정부부채] GDP 대비 국가 총 부채 또한 급격히 심화되고 있으나 총 세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GDP 대비 국가 총 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대비 50% 이상 증가한 2015년 63.2%를 기록하여 SGP 기준 60%를 초과함(그림8).
- 정부재정의 수입원인 세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그림 9).
- 특히 법인세가 2000년 총 세수의 12.4%를 차지했으나 2014년 4.4%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위기 이후 제조업의 둔화에 기인하는 바가 큼.
- 핀란드는 기업 투자활성화 일환으로 2012년 이후 26%에서 20%까지 법인세를 인하하였음.
※ 법인세 인하 추이: 2012년 26%→24.5%, 2014년 24.5%→20%
-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세금인상과 복지, 보건, 교육부문 등에 대한 지원금 삭감을 통해 100억 유로의 지출 축소 추진 예정임.

1) SGP(Stability and Growth Pact)는 EU의 안정성 및 성장에 관한 협약으로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이하, 정부부채는 GDP 대비 60% 이하를 기준으로 EU 회원국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함.

그림 8. GDP 대비 국가 총 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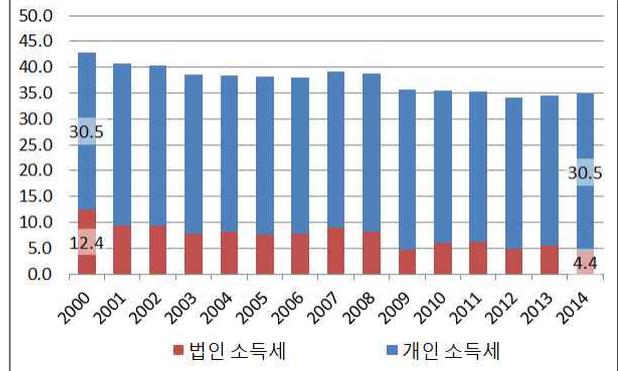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Oxford Economics.

그림 9. 총 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

(단위: 총 세수입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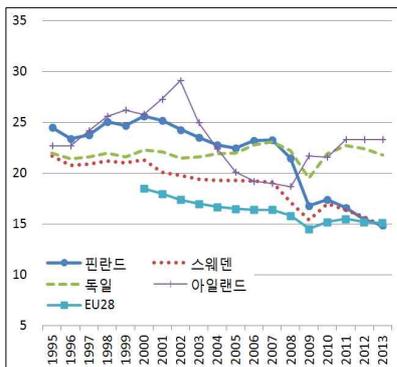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탈제조업화] 핀란드는 총부가가치 생산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였으나 2007년 이후 제조업 비중의 급감으로 탈제조업화가 진행되어 구조변화가 일어남.

- 1995~2000년의 기간 중 핀란드의 총부가가치 생산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25%로 핀란드는 EU 회원국 중 제조업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였으나, 2007년 이후 제조업 비중이 급속도로 감소함(그림 10).
- 1995~2000년 제조업 비중 상위국(%): 아일랜드(24.5%), **핀란드(24.5%)**, 독일(21.8%), 스웨덴(21.3%), 이탈리아(20.1%)
- OECD 통계에 따르면 2000~14년의 기간 중 핀란드 제조업의 국내 총부가가치 생산대비 비중은 11.0%p (27.6 →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한 탈제조업화 현상(%p 기준)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함(그림 11).

그림 10. 제조업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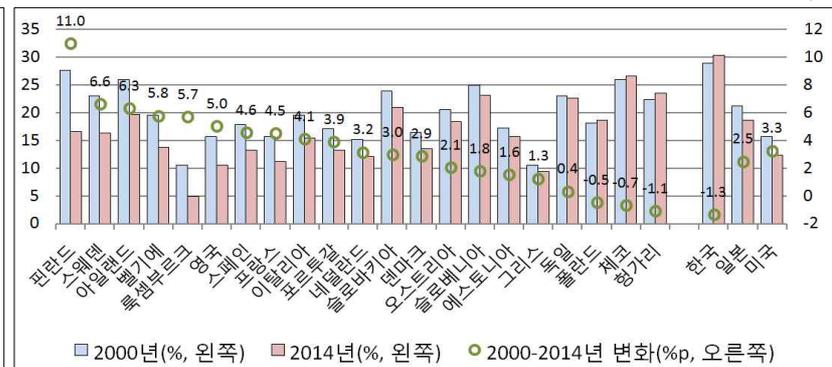
(총부가가치 대비 %) (단위: %)



자료: Eurostat.

그림 11.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의 변화(2000~14년)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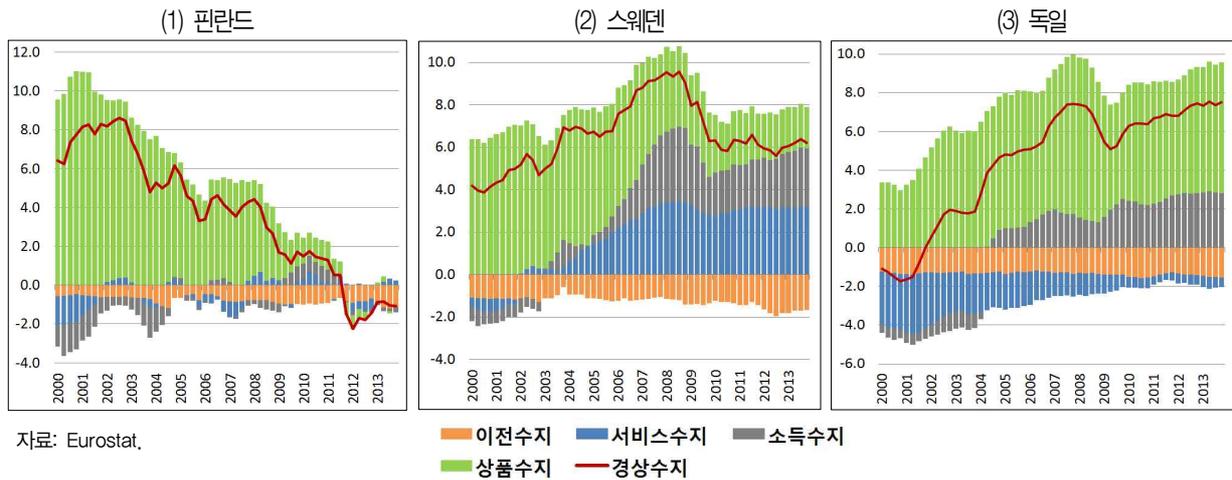
주: [2000~14년의 변화]의 경우 숫자가 클수록 제조업 생산비중의 감소(%p)가 컸음을 의미함. 자료: OECD.

- 핀란드 경제의 탈제조업화 현상은 무역·경상수지에 반영되어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됨(그림 12).
- 핀란드의 경상수지는 2000~02년의 기간 중 GDP 대비 연평균 8.2%를 기록하면서 EU 회원국 중 가장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국가였으나, 이후 급격하게 악화, 2011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GDP 대비 -1.5%)로 전환됨.
- 경상수지의 구성요소 중 하락 폭이 가장 심한 부분은 상품무역수지로, 2000년대 초 GDP 대비 10% 이상의 흑자를 기

록했던 상품수지는 2011년에 1.5%의 적자를 기록함.

- 이와 같은 경상수지상의 급격한 변화는 상품수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에 따른 소득수지의 확대, 서비스수지의 개선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가는 스웨덴이나, 탈제조업화의 정도가 낮은 독일과는 대조를 이룸.

그림 12. 경상수지의 변화 추이(GDP 대비 %)



3. 핀란드 경제의 장기침체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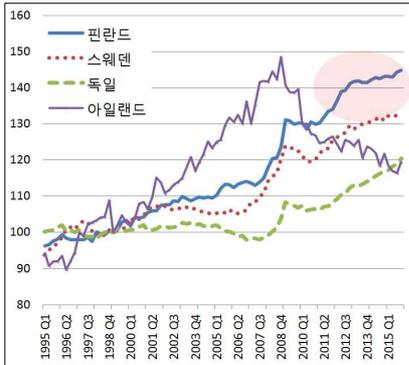
■ 핀란드의 경기침체는 공급측 요인과 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나, 내수부진의 성격을 띤 남유럽의 경기침체와 달리 수출경쟁력 약화와 같은 공급측 요인이 더 우세하게 작용

- 핀란드 경제가 급격한 위기의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부진한 이유는 수출경쟁력의 약화, 산업의 구조조정 등 핀란드 내의 공급측면의 요인이 크게 작용했고, 장기간에 걸친 구조변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임.

■ 핀란드 경제는 임금인상으로 인해 단위노동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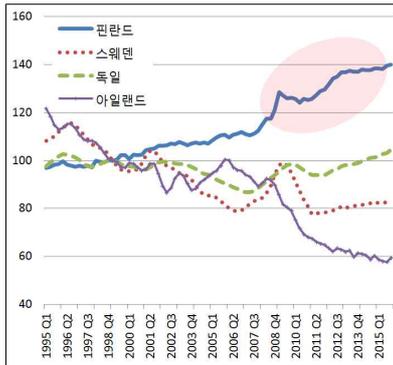
- 핀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장기간 단위노동비용의 상승이 지속되었고, 이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되었음.
- 단위노동비용은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증가폭이 완만하였으나, 2007~08년의 기간 중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아일랜드, 남유럽(그리스, 스페인)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상승함(그림 13).
- 특히 제조업 부문의 단위노동비용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 증가폭이 현저한데(그림 14), 이 현상은 유로존 내에서 결과적으로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함(그림 15).

그림 13. 단위노동비용 추이(전 산업)
(1999년 1/4분기=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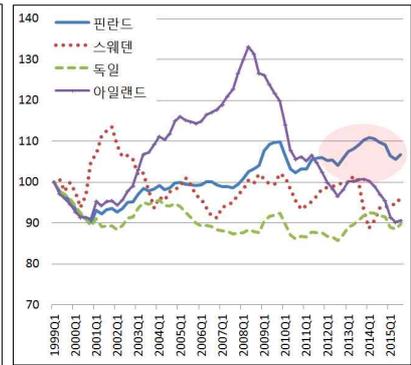
자료: Oxford Economics.

그림 14. 단위노동비용 추이(제조업)
(1999년 1/4분기=100)



자료: Oxford 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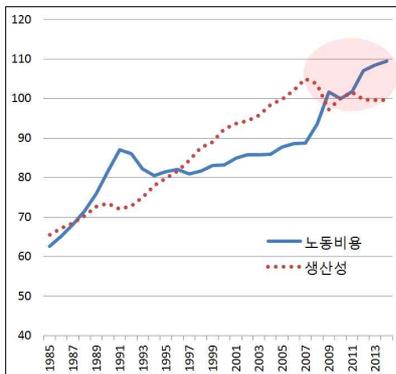
그림 15. 실질실효환율 비교
(1999년 1/4분기=100)



주: 1) 37개 무역상대국 대상.
2) 디플레이터로 단위노동비용을 사용.
자료: Eurostat.

- 핀란드의 생산성 증가는 1995~2007년의 기간 중에는 단위노동비용의 증가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노동비용의 상승이 생산성 상승을 상회하면서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됨(그림 16).
- o 핀란드의 생산성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o 반면에 단위노동비용의 경우 2007년부터 산업별 임금협상 방식이 적용되면서 2007~09년의 기간 중 큰 폭으로 상승함.²⁾
- o 2001~07년의 기간 중 핀란드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변화율은 2.3%로 OECD 평균(1.8%)을 상회하였으나, 2007~13년의 기간 중에는 연평균 -0.3%를 기록하면서 OECD 평균(0.7%)을 크게 하회함(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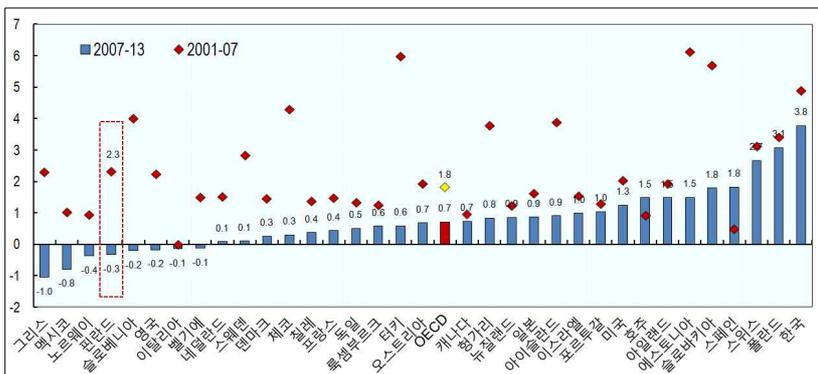
그림 16. 핀란드의 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 추이
(2010년=100)



자료: OECD.

그림 17. 연평균 노동생산성 변화

(단위: %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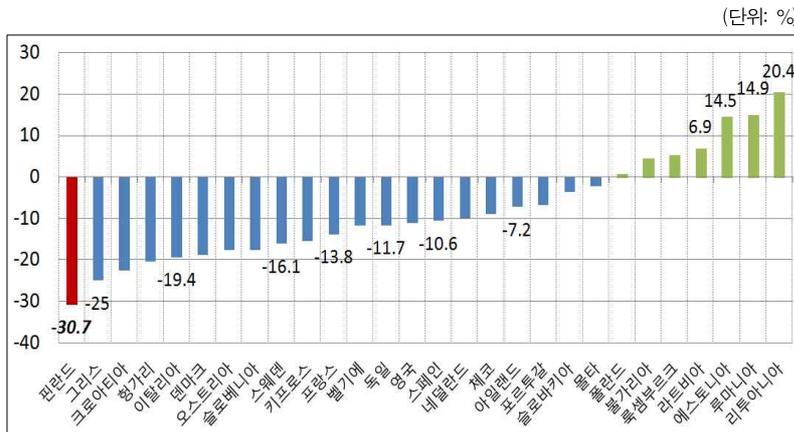


자료: OECD.

2) 핀란드는 1968년 이후 임금협상에 있어 중앙화된 단체교섭 방식을 유지해 왔으나, 2007년부터 산업별 단체교섭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화학, 금속산업에서 시작한 산업별 협상을 통해 노사정은 향후 28개월의 기간(2007년 10월~2010년 1월) 중 7~8%의 임금인상에 합의하였으며, 이 합의는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됨. 공공부문은 같은 기간 11%의 임금인상에 합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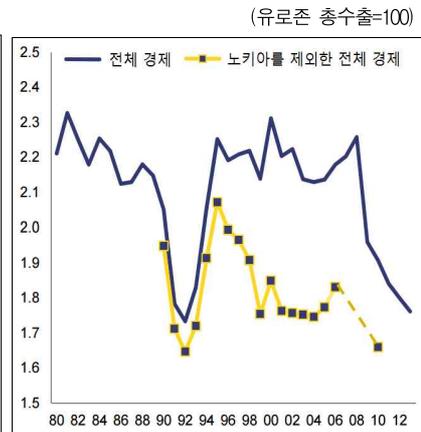
- 2008~13년의 기간 중 핀란드가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30.7% 감소한바, 점유율의 하락폭(%) 기준으로 EU 회원국 중 가장 컸음(그림 18).
- 전 세계 핀란드의 총수출(상품+서비스)은 2008년 874억 유로에서 2013년에는 790억 유로로 9.6% 감소
-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로존 총수출에서 핀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1~2.3%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급감하면서 2012년에는 1.8% 미만으로 하락함(그림 19).

그림 18. 수출시장 점유율의 변화(2008~13년)



주: 1) 수출시장 점유율: 2008~13년의 기간 중 세계시장에서 총수출(상품+서비스)의 점유율 변화, 2) 수출시장 점유율의 하락은 해당 국가의 수출자세가 감소하거나, 그 증가율이 전 세계 수출량의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
자료: Eurostat.

그림 19. 유로존 총수출 중 핀란드의 수출비중 변화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 *Country Report Finland 2015*,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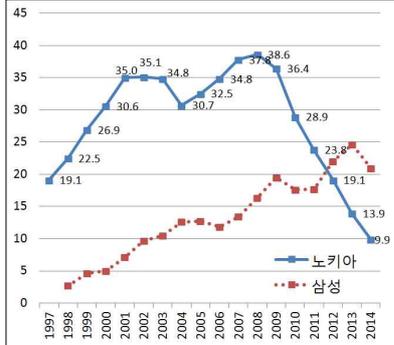
■ 핀란드의 수출 감소에는 노키아의 쇠퇴 등 전자통신 산업의 경쟁력 하락이 결정적으로 작용함.

-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체인 노키아(Nokia)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하면서 핀란드 전체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함.
- 2000~08년의 기간 중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면서 세계 1위 생산업체로서의 입지를 구축함(그림 20.1).
- 1990년대 초 노키아의 순이익과 수출은 각각 핀란드 GDP의 0.5%와 5% 미만이었으나, 2000년에는 각각 핀란드 GDP의 4%와 총수출의 20%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함(그림 20.2).
- 핀란드 정부의 총 법인세 수입 중 노키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3%에 달함(그림 20.3).
- 2011년 노키아의 수입(revenue)은 핀란드 총 GDP의 20%로 핀란드 GDP 성장률의 25%가 노키아의 수입증가에 기인할 정도로 핀란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컸음.³⁾
- 2011년 노키아는 자국의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세계에서 9위를 차지하였으며, 비에너지 기업 중에서는 5위를 차지함(그림 20.4).

3)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2/08/daily-chart-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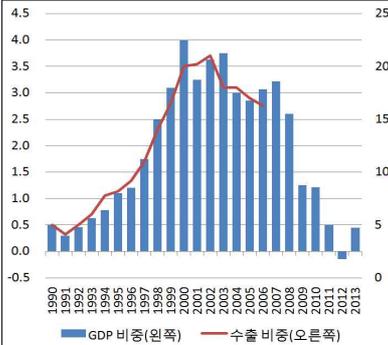
그림 20. 핀란드 경제와 노키아

(1) 노키아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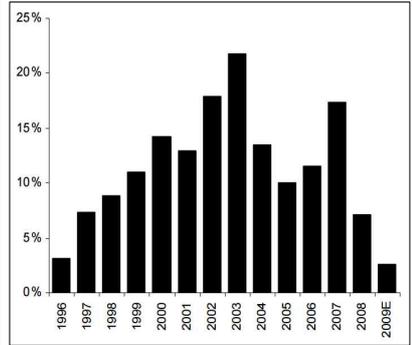
주: 노키아는 2011년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휴대폰 부문에서 전략적 제휴.
자료: Gartner; <http://www.statista.com>.

(2) 핀란드 GDP와 수출 중 노키아의 비중 (단위: %)



주: 1) GDP 중 비중은 노키아의 순이익을 의미함. 2) 2012, 2013년의 자료는 추정치.
자료: Ali-Yrkk(2010), p. 10; Financial Times.ö

(3) 핀란드 법인세 중 노키아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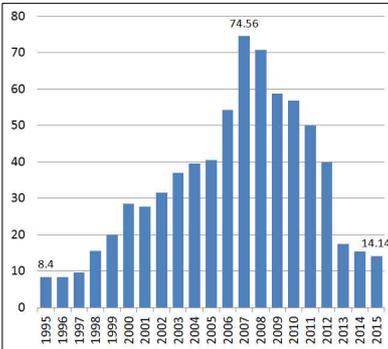
주: 2009년은 예상치.
자료: Ali-Yrkk(2010), p. 16.

(4) 자국 GDP 대비 수입 상위기업 (단위: %)

기업	국가	GDP 대비 수입(%)
ArcelorMittal	룩셈부르크	161
Essar Energy	모리셔스	132
Royal Dutch Shell	네덜란드	56
China Mobile	홍콩	34
Glencore	스위스	29
Staoil	노르웨이	24
PTT	태국	23
Hon Hai	대만	20
Nokia	핀란드	20
MOL Group	헝가리	19

주: 2011년 기준.
자료: Bloomberg; IMF; The Economist
<http://www.economist.com/node/21560867>.

(5) 노키아의 수입(revenue) 변화 (단위: 10억 달러)



자료: [http://www.wikinvest.com/stock/Nokia_\(NOK\)/Data/Revenue](http://www.wikinvest.com/stock/Nokia_(NOK)/Data/Revenue).

(6) 노키아 주가지수의 변화 (주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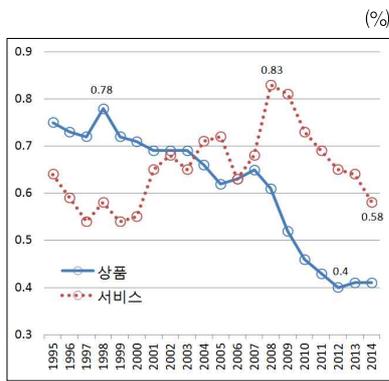
- 반면에 통신장비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노키아는 2007년 이후 시장점유율 및 수입, 영업이익이 급감하였으며,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함.
- o 노키아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하락하여 2014년에는 10%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 745.6억 달러에 이르렀던 수입도 2015년에는 141.4억 달러로 감소함(그림 20.5).
- o 2007년 말 27달러였던 주가지수는 2012년 7월에는 1.4달러까지 하락한 이후,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20.6).

글상자. 1 핀란드 경제에서 노키아가 차지하는 비중⁴⁾

- GDP 비중: 핀란드 GDP의 4.0%(2000년) → 2.6%(2008년)	- 총 특허 신청 수: 43%(2006년)
-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0.99%(2009년)	- 핀란드 총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23%(2003년) → 9%(2009년)
- 핀란드 총고용 중 비중: 0.9%(2008년)	-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 생산: 11.5%(2008년)
- 핀란드 제조업 총고용 중 비중: 5.5%(2008년)	- 주식시장 시가총액: 1,168억 달러(2007년), 헬싱키 주식시장 상장주식의 70%
- 핀란드 총 R&D에서 차지하는 비중: 36.9%(2008년)	- 전 세계 휴대폰 시장점유율: 38.6%(2008)→9.9%(2014)
- 핀란드 총 민간 R&D에서 차지하는 비중: 49.7%(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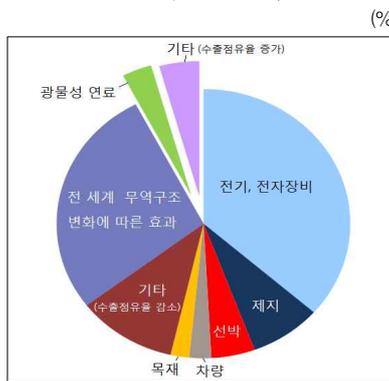
- 노키아로 대표되는 통신장비 산업의 쇠퇴는 핀란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노키아 쇼크(Nokia Shock)'로 일컬어짐.
- o 노키아의 쇠퇴와 함께 핀란드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상품과 서비스 양쪽 모두 2007년부터 급락(그림 21)하는데, 가장 크게 하락한 산업분야는 휴대폰을 포함한 전기, 전자장비 분야임(그림 22).
- o 전기·음성·영상기기(HS 85)는 2000~05년의 기간 중 핀란드 총 상품수출의 25%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8.4%로 하락하였으며, 유무선 전화기(HS 8517+8525)의 수출은 2007년 88.3억 유로에서 2013년 5.5억 유로로 감소함(그림 23).

그림 21. 핀란드의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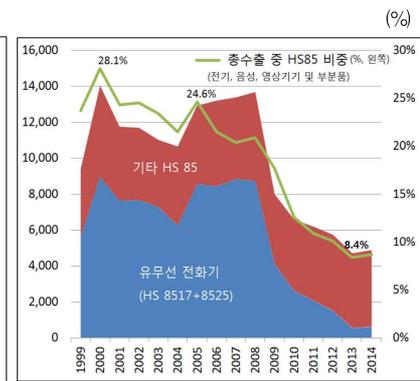
자료: Eurostat.

그림 22. 핀란드의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2000~13)



주: 2000년대비 2013년의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중 각 항목별 기여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 p. 24.

그림 23. 핀란드의 유무선 전화기 수출 추이



주: HS 8517(유무선 전화기)와 HS 8525(카메라)는 두 제품의 통합에 따라 2007년부터 전화기(HS 8517)로 분류됨.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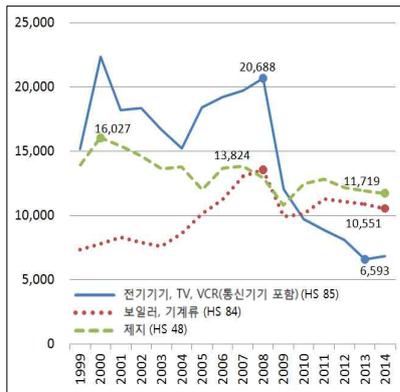
■ 전기기기를 포함한 핀란드의 주요 품목은 지속적인 수출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부터 발효된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도 핀란드 수출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함.

- 상술했던 전기기기(HS 85, 통신기기 포함) 외에도 제지(HS 48) 수출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목재 및 철강수출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급감한 후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그림 24).
- o 핀란드의 10대 수출품목(총수출의 79%) 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수출이 회복되지 못한 품목군은 6개로, 이는 핀란드 총 상품수출의 70%에 해당함.⁵⁾
- 대러시아 수출은 핀란드 총수출 중 10%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5년 중에는 5% 수준으로 감소함(그림 25).
- o 핀란드의 대러시아 수출 변화(백만 유로, 연도): 5,688(2012) → 5,358(2013) → 4,638(2014) → 3,157(2015)

4) Ali-Yrkkö, Jyrki ed.(2010), *Nokia and Finland in a Sea of Change*, ETLA, p. 4.

5) 2000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림 24. 핀란드 주요 품목군의 수출 추이



주: 상기의 6개 품목군은 2000년 핀란드 상품수출의 70%에 해당.
자료: Eurostat.

그림 25. 핀란드의 대러시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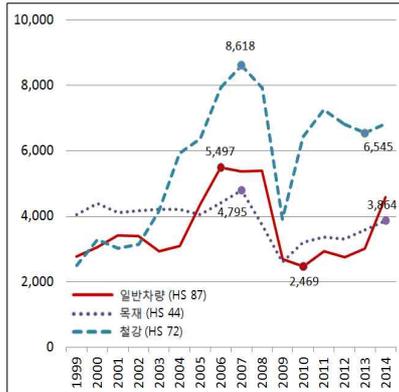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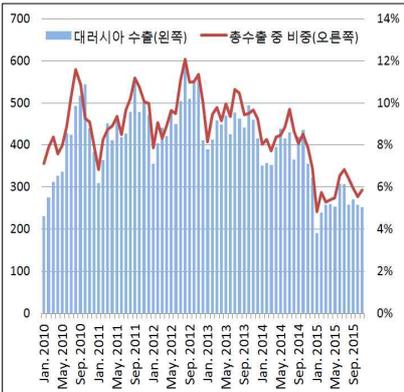


그림 25. 핀란드의 대러시아 수출 (단위: 백만 유로) (단위: %)



자료: Eurostat.

■ 유로화 사용이 점차 핀란드 경제에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수출감소의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유로화 사용국인 스웨덴과 폴란드의 적극적인 통화·환율 정책이 경기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자, 핀란드 내에서도 유로화 사용의 불이익이 제기되기 시작함.
 - 스웨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회원국 중 가장 우수한 경기회복력을 보인 바 있으며, 이후 수출증가를 비롯하여,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그림 4 참고).
 - 특히 2012년 이후 스웨덴 크로나(Krona)화(貨)가 유로화 대비 약세현상(그림 26)을 보이고, 스웨덴의 수출이 증가현상(그림 28)을 보이자, 유로화 사용이 핀란드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 “핀란드 외무장관 발언: 핀란드는 유로존에 가입하지 말았어야 했음”(2015. 12. 22, Bloomberg).⁶⁾
- 반면에 핀란드의 수출하락은 대부분 정보통신 장비와 같은 상위기술 분야에서 발생(그림 27)했으며, 같은 기간 유로화 사용국인 독일, 스페인의 수출이 증가(그림 28)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로화 환율이 핀란드의 경기침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그림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핀란드 상위기술 분야(대부분 통신장비)의 총수출 중 비중은 2005년 23.7%에서 2013년에는 6.8%로 하락한바, 대부분의 수출하락이 통신장비 분야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음.
 - ※ 차별화된 상품이 주를 이루는 고기술 분야는 환율변동에 덜 민감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
 - 핀란드의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내적절하 과정(예: 임금축소)을 거칠 수밖에 없는바, 유로화 사용의 불이익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6) Bloomberg(December 22, 2015), “Finland Should Never Have Joined Euro, Foreign Minister Says,”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12-22/finland-should-never-have-joined-euro-foreign-minister-says>(검색일: 2016. 2. 23).

그림 26. 스웨덴 크로나(Krona)의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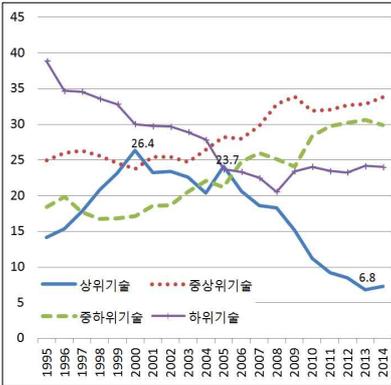
(단위: 크로나/유로) (단위: 크로나/달러)



주: 월별 환율.
자료: Bloomberg.

그림 27.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한 핀란드의 수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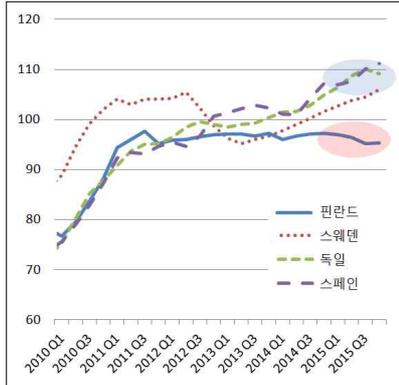
(단위: %)



주: 기술에 따른 산업분류는 OECD 표준분류에 따른.
자료: OECD.

그림 28. 핀란드와 주변국의 수출추이 비교

(2012년 1분기=100)



주: 핀란드는 4분기 이동평균이며, 나머지 3개국은 2분기 이동평균임.
자료: Eurostat.

4. 핀란드 경제의 구조개혁 노력

■ 구조개혁 필요성은 핀란드 내부에서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현 정부는 2015년 출범 이후 산업경쟁력 향상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음.⁷⁾

- 2015년 5월 유하 시필레(Juha Sipilä)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출범 직후 핀란드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즉각적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함⁸⁾
- 구조조정 계획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공재정의 건전성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가격경쟁력 측면과 비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음.

- [가격경쟁력] 핀란드 정부는 2015년 6월 22일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임금 개혁안을 발표함.
 - 임금개혁안은 ① 일회성 인건비 삭감 ② 향후 수년간 임금상승 억제 ③ 임금협상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2019년까지 전체 임금의 5%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추가적 임금상승 없이 노동시간을 5% 연장하는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을 제안함.
- 정부의 개혁안이 성공할 경우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노사대표(social partners)간의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
 -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차휴가기간 축소 △공휴일의 무급연휴 전환 △질병수당 축소 △고용자의 사회보장비용 부담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7) OECD(January, 2016), *OECD Economic Surveys Finland*.

8) Euro Insight (MNI)(2015. 9), *Finland needs to reform, or close up shop*.

- [비가격경쟁력] 노키아의 하락으로 인한 IT 시장 점유율 감소와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제지·목재 산업의 쇠퇴는 경제 전반에 걸친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요구함.
- o [전자IT 산업]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산업계 내의 구조조정 진행 중
- o [제지산업] 신흥시장을 상대로 고품질의 목재 수출 및 목재 부산물을 통한 생물연료에너지 개발 등 환경 친화적 신산업 전략 추진
- o [화학산업] 액화천연가스를 통한 친환경선박제조기술 등 선진화된 선박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조선업의 재활성화 추진
- o [신성장동력] 산업경쟁력 하락과 이에 따른 수출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과 기업가 정신 제고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추진

■ 공공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은 ① 재정 건전화 계획에 기반한 정부예산 긴축 ② 구조개혁을 통한 공공지출 삭감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핀란드 정부는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고 고령화 관련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예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추진 중임.
- o 핀란드의 총 국가채무는 2008년 위기 이전 GDP의 40% 미만이었으나 2015년 GDP의 60%로 증가⁹⁾
- o 핀란드의 GDP 대비 정부지출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10%p 증가함.
- o 이 중 절반이 고령화 및 높은 실업률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증가에서 비롯됨(표 3 참고).
- o OECD는 핀란드 정부가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2030년에는 총 국가채무가 GDP의 100%, 2060년에는 200%에 달할 것으로 추정

표 3. 공공지출 규모 및 구조 변화(2001~14년)

	연도별 수준(GDP 대비 %)			기간 내 변동 폭(%p)		
	2001	2008	2014	2001~14	2001~08	2008~14
총 정부지출	47.3	48.3	58.3	11.0	1.0	10.0
소비	20.0	21.7	24.8	4.8	1.7	3.1
임금	12.6	12.9	14.2	1.6	0.3	1.3
사회보장	15.3	14.7	19.6	4.3	-0.6	4.9
총 수입	52.3	52.4	54.9	2.6	0.1	2.5
직접세(가계)	14.1	13.2	14.2	0.1	-0.9	1.0
직접세(기업)	4.3	3.6	2.3	-2.0	-0.7	-1.3
간접세	12.9	12.4	14.0	1.1	-0.5	1.6
사회기부	11.8	11.6	12.8	1.0	-0.2	1.2

자료: OECD(2016), p. 18.

- [재정건전화 계획]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진행되는 재정건전화 계획은 GDP의 2%에 달하는 40억 유로 규모이며 이 중 32억 유로가 지출축소로 이루어짐.
- o 이 기간 동안 대규모 거시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030년까지 공공채무를 GDP의 7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9) 2015년 기준 핀란드 총 국가자산은 GDP의 50%이나, 이는 개인연금규모에 기인한 것으로 재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

- 주요 지출 삭감 항목에는 사회보장, 교육, 연구개발 등이 해당됨.
- 핀란드 정부는 공공지출 삭감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일회적 투자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2020년까지 국가채무의 지속적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
- [구조개혁]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구조, 노동시장, 교육, 의료 및 보건서비스 등 주요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을 추진
- 특히 노동시장개혁은 핀란드 경제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개혁 과제임
- 노동시장개혁의 핵심 과제에는 ① 연금제도 ② 실업보험 ③ 취업정책 ④ 임금협상방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4]와 같음.

표 4. 핀란드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현황(2014년 이후)

구분	주요 내용	기대효과
연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연금수령 연령을 63세에서 65세로 적용(2025년까지) · 이후에는 최저 연금수령연령을 예상수명에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지출 6% 감소 · 정부 재정수지 균형 향상(GDP의 약 1%)
실업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보험 2억 유로 삭감 · 실업보험 수혜 최대기간을 500일에서 400일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보험비용 감축 및 재취업 촉진
취업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정책 통합 · 실업 초기단계 구직시도의무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의 효과적 재취업 촉진
임금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단체교섭 방식(two-tier collective bargaining) 도입(기존의 단일협상체계를 유지하되 기업차원의 임금협상 자율성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적 임금조정과 효율적 노동분배를 동시에 달성 · 임금, 노동시간, 유연근무 및 복리후생 관련 피고용자의 협상력 강화 기대 * 이중단체교섭 방식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음
고용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습기간 연장 추진 · 1년 미만의 기한부 계약에 관한 규제 요건 완화 · 조기 해고자에 대한 고용제공 의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채용자의 역량 점검 강화를 통해 고용에 수반되는 위험비용 감소

자료: OECD(20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핀란드 경제는 현재 재정건전화를 비롯한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2016~17년 중에도 저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구조조정의 성공 및 대외수요의 회복여부에 따라 경기회복의 가속여부가 결정될 것임.
- 핀란드 경제는 남유럽 경제와 달리 국가채무 및 가계부채의 비중이 높지 않은바, 지난 수년간 남유럽 일부에서 나타난 대차대조표형 불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 2015년 핀란드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62.7%로 유로존 평균인 92.7%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유로존의 평균 수준
- 반면에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 및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확대력의 감소, 대외수요의 불안요인 등을 감안

할 때, 단기간 내의 경기확장은 어려움.

- EU 집행위원회는 핀란드 경제가 2016년 0.5%, 2017년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

■ 핀란드 경제가 노키아에 의존적이었다는 점은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나, 노키아의 쇠퇴가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함.

- 노키아는 핀란드의 대표적인 다국적기업으로 핀란드인에게 작은 국가도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함.
- 노키아의 쇠퇴는 핀란드의 창업분위기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큰 변화를 주었으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생하였음.¹⁰⁾¹¹⁾
- 10,000여명에 이르는 노키아의 R&D 분야 인력은 2006년 이후 핀란드의 창업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실제로 2011년 4월부터 실시된 노키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000여개의 중소기업이 탄생
 - ※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Nokia Bridge Incubator)는 좋은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가진 노키아 출신 해고, 퇴직인력에 대해 2만 유로까지 창업지원금을 제공하고 4인이 창업할 경우 10만 유로, 이후 사업체당 최대 5만 유로까지 추가로 지급
- 201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IT 종사자 응답자 중 77%는 노키아의 추가적인 쇠퇴가 핀란드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고 대답

■ 핀란드의 경기침체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대외경쟁력 유지가 중요하며,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은 호황기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 핀란드 경제는 노키아를 중심으로 한 전자통신장비 산업의 발전에 따라 1995~2008년의 기간 중 연평균 3.7%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이 지속됨으로써 대외경쟁력이 하락하였음.
- 핀란드의 스티브(Alexander Stubb) 전 총리는 핀란드의 경제상황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한 바 있으며,¹²⁾ 적절한 구조조정 조치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이 상황이 계속 재현될 것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¹³⁾
- 반면에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가 진행되고, 재정 및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에 대해 핀란드 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인 점임. **KIEP**

10) Wired.co.kr(October 4, 2013), “Finland and Nokia: an affair to remember.”

11) 핀란드의 창업환경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김정곤 최보영·이보람·이민영(2014),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14-11, pp. 171~205.

12) *The Economist*(April 8, 2015), “Turning Finish.”

13) *Reuters*(March 24, 2015), “PM Stubb sees risk of another lost decade for Finland.”